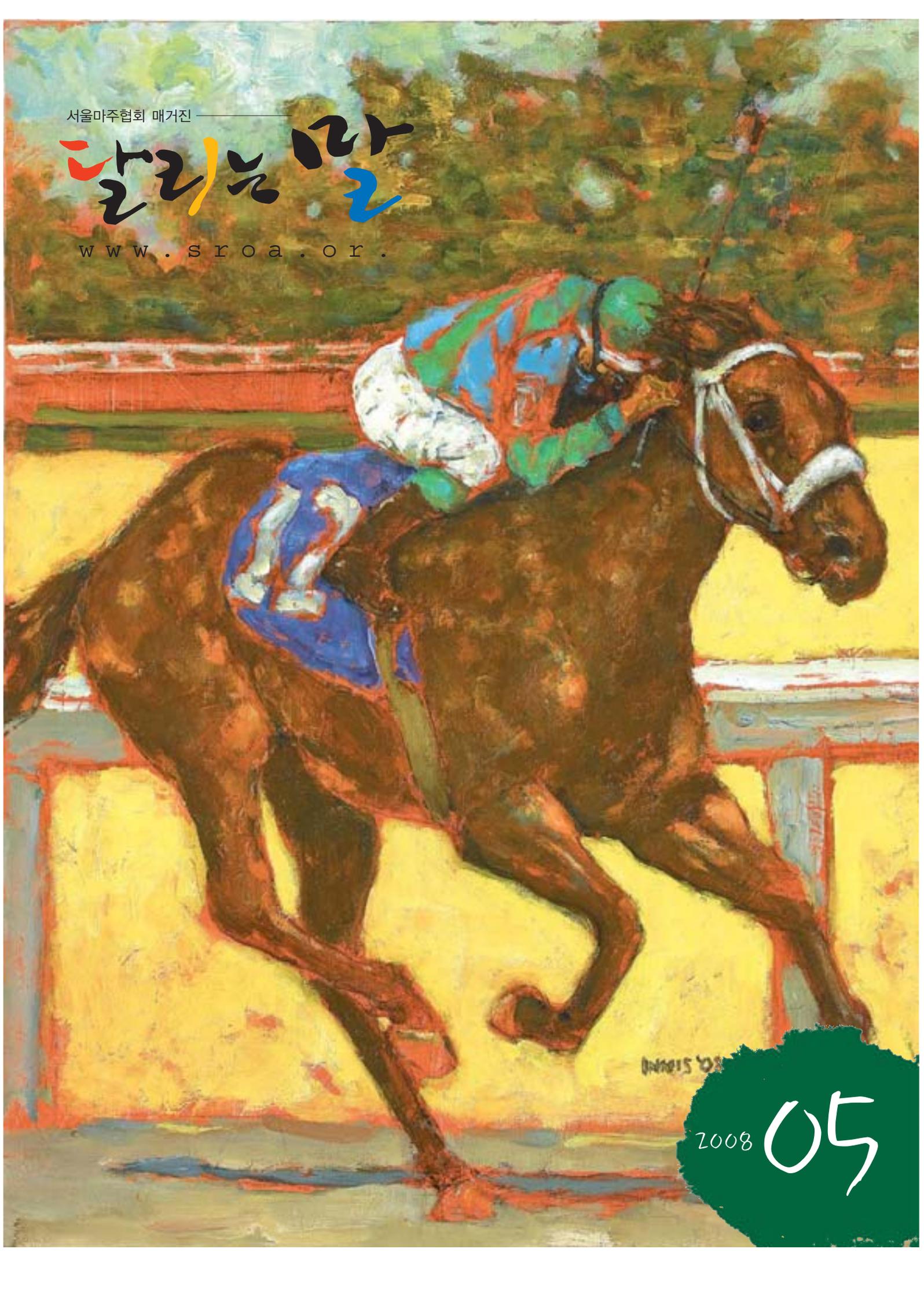


서울마주협회 매거진

달리는 말

www.sroa.or.kr



2008

05

“ 말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 #2 ” What Horses Tell Me

우리가 숲에 닿기 전에 말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너는 말 위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두려워하고, 말을 탈 줄 몰라. 너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나를 화나게 해. 네가 안장 위에 더 오래 잘못 앉아 있을수록 나는 더 화가 날 테니 내가 너를 던져 버리기 전에 내렸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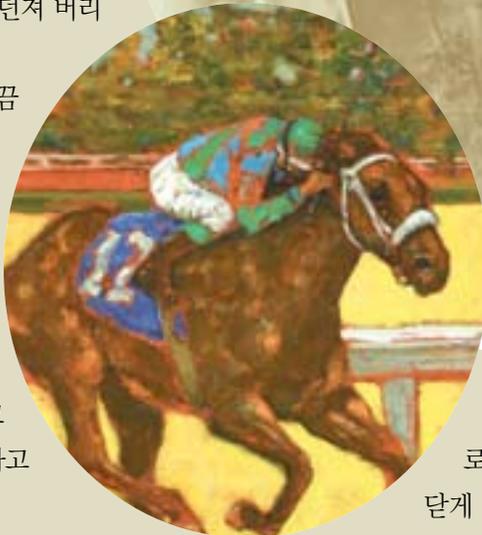
나는 그 제안을 환영했고, 내가 내릴 수 있게끔 속도를 좀 줄인다면 기꺼이 바로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쯤 되자 말은 길가로 가서 신발 등에 묻은 진흙을 긁어 내듯 나무의 한 면에 대고 나를 긁어 내버렸다. 말은 내 다리를 밟아 부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을 뒤따라서 마구간으로 돌아갔을 때 주인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면 안돼”라고 고삐를 건네며 “누가 주인인지 알려줘야 해”라고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고삐를 받지 않으려고 꼼짝 않고 있다가 말을 바라 보았고, 말도 나를 보았다. 다시 한번 말과 나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너무 늦었어요.” 나는 주인 아저씨에게 말했다.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말과 나는 일종의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 위에 어떤 권위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저 친구로서 만날 뿐이었다. 내가 묻는 말에 말들은 대체로 대답했다. 더 나아가 나는 의사소통 중에 때로 발생하는 그들의 침묵을 존중했다.

언어란 종종 탁하며, 부정확하고 어두운 것들이 뒤엉켜 있다. 말과 이야기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인간이 말을 식용으로 하기 보다 말과 함께



작업함으

로써 얻는 유용성을 깨닫게 된 후부터 인간은 이미 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과 인간이 함께 해온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말을 건넸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보통 동물과 함께 지내고 작업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특별한 이해를 갖게 된 것에 참 감사하다.

종종 내가 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아해 하곤 했었다. 내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나와 그들 사이에 어떠한 형제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술가와 말 둘 다 그리고 특별히 경주하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순수함이 있다. 어떠한 사업이나 정부의 일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삭빠른 면모가 그들의 본능에는 없다. 대체로 그들



나는 보통 동물과 함께 지내고 작업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특별한 이해를 갖게 된 것에 참 감사하다. 예술가와 말 둘 다 -그리고 특별히 경주하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순수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류의 존재가 갖는 본능에 충실하게 예술가와 말에게 결승점이란 경주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은 돈이나 권력의 힘을 쫓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가이자 말인 존재들은(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순수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함께 사용하는 언어는 직관적인 감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 결과로 어떤 때는 살짝 우월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다른 그 어떤 생명체 중에서 가장 명철한 존재들일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말과 예술가들의 경쟁심은 강하다.

그들 스스로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척 하지만 말이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허영심이 그 경쟁심을 설명할 수 있다.

내게는 부산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말(馬) 친구가 있는데 그는 거세된 말이다. 내가 그 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첫 경주 시즌을 뒤로 한 채 이제 2살이 된 그는 남을 화나게 하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었다. 아직 경주에서 실제로 이긴 적은 없지만, 이길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 장소에 있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새벽조교나 마방에서 내가 직접 촬영한 녹화 테이프도 보았다. 그는 순위 안에 들거나 다른 말들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번 그는 결승선을 넘어 몇 피트 지나 앞서 가던 말들을 천둥과 같이 지나쳤다. 아주 쉽게 말이다. 그는 이렇게 타이밍을 맞춘다.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소풍 중이다. 경주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내야와 관중석을 감상하고, 날씨가 어떤지 살피며, 무리들 가운데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스스로를 제지한다. 경마장의 직선 코스에서 그는 막대기를 무시한다. 그가 원할 때 속도를 내는데 이것은 언제나 몇 피트 너무 늦다.

“그냥 이기지 그래?” 라는 내 질문에 그는 큰 한쪽 눈으로 나를 관찰하면서 경멸적으로 콧방귀를 킨다.

“이기고 있잖아” 그는 말한다. “아무한테나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나는 대답한다. “너 한번도 경주에서 이긴 적이 없잖아.”

“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나랑 경주한 말들을 붙잡고 물어봐” 그는 말한다.

그가 아마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류의 존재가 갖는 본능에 충실하게, 결승선이란 것이 우리가 달리는 경주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 말이나 예술가를 나는 본적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술가와 말에게 결승점이란 경주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단지 달릴 뿐이다. SROA

번역: 신원 에이전시 노지연, 유경아

Writer
 원저 조 이니스 www.InnisArt.com
 WORLD ARTIST WINDSOR JOE INNIS
 세계적인 Neo-Impressionist 현대미술 작가인 Windsor Joe Innis는 전 생애를 걸쳐 에세이와 칼럼을 썼으며, 여러 편의 시나리오와 다섯 권의 책을 펴낸 저술가이기도 하다. 그의 최근 소설인 Also Rising은 1998년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당시 평단의 열렬한 감채를 받았다. 새로 출간될 그의 저술 Innocence Abroad, The Girls of Coatepec은 총 278쪽에 넓은 판형의 모노그래프 Mellon Limited 에서 출판되었다 분배는 아시아, 미국, 영국, 유럽 될것이다. 저자는 Who's who in America(미국 인명백서)와 Gales Contemporary Authors(게일즈 현대 작가선)에 이름이 올라 있다.
 연락처: InnocenceAbroad@shinwonagency.com

